

하루를 시작하며



이종실
전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쓸쓸한 스승

스승의 날을 넘기면서, 학교에서 겪은 마지막 스승의 날을 떠올린다. '쓸쓸함'이 사람을 수식할 수 있음은 박완서의 소설, '너무도 쓸쓸한 당신'에서 배웠다. 그 쓸쓸함은, 정작 자신은 못 느끼고 있지만, 타인인 아내가 '그'에게 갖는 '연민의 정'이었던 것으로 이해했다. 옛그제 스승의 날도 그때와 같았다면 대부분의 학교가 조용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선생님들은, 세상 관심이 적어도 학생은 있으나 제자는 없고, 교사는 있으나 스

승은 없다'는 말이 없음에 안도했을 것이다.
예전의 스승의 날들이 생각난다. 이날은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이해와 소통이 이뤄지는 축제일이었다. 학생들은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편안함, 고마움, 사랑 혹은 존경을 편지에 담아 선생님께 전했다. 이때는 주로 꽃이나 과자가 함께했다. 선생님들은 글을 읽고 아이들의 깊은 사려에 감동하고,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깜짝 파티를 벌여 놓고 '스승의 은혜'를 다 함께 열창하기도 했다. 선생님들은 그제 고맙고 미안했다. 그래서 반성도 하고,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2016년, 그 스승의 날의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랐다.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휴교했다. 선생님들은, 금요일이면 뇌물이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 선생님들

은, 수업이나 모습이 멋있으며 건네는 학생들의 인사 한마디에 행복하고, 진경을 담은 글에 감동할 줄 안다. 선생님들은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물질보다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 익숙하다. 이것은 학생들도 잘 알고 있다. 부정이 우려되면, 이런 인사나 쪽지도 법으로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
요즘, 스승의 날의 세태 말고도 선생님들에 대해 필자가 느끼는 쓸쓸함은 무척 크다. '스승의 쓸쓸함'은, 교육 밖의 세상이 학교와 교사에 대하여 가지는 무지와 무시, 무례가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본다. 필자의 이 생각이 틀렸기를, 아니면 이 제라도 세상이 스승 친화적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란다. 스승이 담당해야만 뇌물이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 선생님들

사설

행정체제 개편 용역 부실... 제도수정해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용역내용이 부실해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5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용역의 부실을 집중 추궁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현 행정체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법인의 이 생각이 틀렸기를, 아니면 이 제라도 세상이 스승 친화적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란다. 스승이 담당해야만 교육이 제대로 살고 제자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마당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수입니다



고정훈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승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수적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 차량용 소화기 1대가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주길 당부드린다.

뉴스-in

추경 기간 오 지사는 술 걸들인 회식

"시기적으로 부적절" 지적
공휴일·서귀포 강연 배경은
○...제주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사 기간 제주도와 도의회 간기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16일 오후 오 지사와 집행부 등이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술을 걸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논란.
실무자 격려차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지만, 수백억원의 추경 예산이 도의회의 심의위 심사서 삭감되는 상황에서 회식자리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
A 도의원은 "집행부 격려차 마련한 자리로 보이지만 제주도 와 도의회간 추경예산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술을 걸들인 저녁 식사 자리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
이태운기자

전기료 잇단 인상, 사지로 내몰린 1차산업

물가 인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각종 물가가 뛰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458개 중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이 395개에 이른다.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 중 무려 86%가 오른 것이다. 사실상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요금도 또다시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kWh당 8원(5.3%) 올리는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에 전기요금을 13.1원(9.5%) 올린 데 이어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4월 기준 월 전기요금은 3000원가량 더 늘어나 서민 오름 것이 아니다. 지난해 4월과 7월에 각각 4.9원, 7.4원 올랐다. 게다가 용도별 차등 없이 동일 금액을 일괄적으로 올리면서 전기료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일부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만만찮다는 사실이다. 특히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요금 인상 후 양식장별로 많게는 50% 가까이 전기료 부담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9900㎡ 규모 양식장의 경우 지난해 1월 2300만원이던 전기요금에 12월에는 33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기요금을 잇따라 올리면서 도내 1차산업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나오지 않아 큰일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백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점합니다.
전화 010-7301-7737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실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서귀포시정소식
일상 속 건강관리 영상 챌린지 공모전
2023년 저소득층가구 LED조명 시설(교체)사업 알림
서귀포예술의전당 5월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알림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제주주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010-7305-7819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010-7328-1107, 010-6275-5200
* 부동산중개사 아님